

# 나주시 직영 치매안심센터 9월 준공

### 건강증진센터 리모델링·증축...조기검진·1대1 사례 관리 전문병원 능가하는 의료진 배치...수준 높은 의료서비스 제공

나주시가 직영으로 운영하게 될 '치매안심센터'가 오는 9월 준공을 목표로 착공했다. 4일 나주시에 따르면 시는 시보건소 옆 건강증진센터를 '치매안심센터'로 리모델링하는 증축공사를 본격적으로 시작했다. 연면적 848.83㎡ 규모의 치매안심센터는 국비 7억원, 시비 5억원 등 총 12억원을 들여 기존 건강증진센터 건물 2·3층은 리

모델링하고 4층을 새롭게 증축하게 된다. 1층 건강증진실을 비롯해 2층 접수대, 교육상담실, 치매 검진실, 치매예방 프로그램실이 3층에는 인지재활프로그램실, 치매가족 휴게실인 가족 카페가 설치된다. 4층은 센터 근무자 24명을 위한 사무실로 꾸며질 계획이다. 나주시 최초의 직영 치매안심센터에는 치

매 조기검진과 치매환자 1대1 사례관리 등을 통한 치매 전문 의료서비스 제공에 필요한 치매 전문상담실과 검진실 등이 들어설 예정이다. 또 치매 환자 못지 않게 고통받는 환자 가족을 위한 교육실과 가족쉼터 카페 등을 마련해 나주만의 특색 있는 치매지로 통합 솔루션 공간도 선보일 계획이다. 치매안심센터에는 일반 전문병원을 능가하는 의료진과 전문 인력이 배치된다. 의사 1명, 직종별 간호사, 임상심리사, 작업치료사, 1급 사회복지사 등 총 24명이

상주하며 수준 높은 의료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이 센터는 치매로 고통 받는 나주시민이면 누구나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 '열린 센터'로 상시 운영될 계획이다. 강인규 나주시장은 "오는 9월 문을 열 예정인 치매안심센터는 치매전문요양병원이 부족한 지역 실정을 보완해주는 매우 중요한 역할을 담당할 것"이라며 "내 집처럼 안전하고 편안한 곳이 될 수 있도록 공간 조성에 최선을 다해 달라"고 말했다. /나주=김민수 기자 kms@kwangju.co.kr

## “한여름 밤 콘서트 보며 무더위 날려요”

### 나주시립예술단 대호수변공원 등서 10~13일 공연

“한 여름 밤 아름다운 콘서트로 무더위 확 날려요.” 나주시는 다양하고 수준 높은 공연 연출로 시민들의 사랑을 받고 있는 나주시립예술단의 ‘한 여름 밤의 콘서트’가 오는 10일부터 13일까지 열린다. 4일 밝혔다. 오는 10일 대호수변공원 공연을 시작으로 11일 영산포 화포돛대 선착장, 12일 빛가람 중앙호수공원 야외공연장, 13일 남평중학교 체육관 등에서 릴레이로 공연을 선보일 예정이다. 이번 공연은 민선7기 출범과 전라도 정

명 천 년을 기념하고 지속적인 시민의 문화 향유를 위해 마련됐다. 특히 이번 공연은 시립예술단원뿐만 아니라 시민합창단과 시민성악교실 수강생 등 270여명에 이르는 시민 단원들이 출연해 음악을 통해 하나 되는 소통과 화합의 장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10일 개막 공연에는 시립합창단과 시민합창단이 함께하는 합창곡 ‘자유롭게’와 ‘사랑으로’, 시립국악단의 ‘아리랑 환상곡’과 ‘인생의 회전목마, 리베르탱고’ 등을 비롯해 ‘판’, ‘진도복춤’ 등 전통과 현대



나주시립예술단의 ‘한 여름 밤의 콘서트’가 오는 10일 개막한다. 지난해 공연 모습. <나주시 제공>

를 아우르는 다채로운 공연이 1시간 30분 이상 수변공원 무대를 뜨겁게 달굴 예정이다. 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나주=김민수 기자 kms@kwangju.co.kr



지난 30일 나주 이야기관 수강생들이 문평면에 있는 나대용 장군 생가와 소총사, 봉강사, 송재사, 거평사, 국립나주박물관 등을 견학하며 조선시대 나주 역사인물들을 만나는 시간을 가졌다.

## 나주 이야기관 ‘임란 주역 발자취를 찾아’ 강좌 개최

나주향교 굽은소나무 학교는 지난 30일 ‘임진왜란 주역들의 발자취를 찾아’라는 주제로 거북선 건조의 주역 체암 나대용 장군 생가 등에서 나주 이야기관 강좌를 열었다. 나주 이야기관 수강생 30여명이 참석한 이날 강좌는 나주향교학예연구소장 윤영정 강사와 함께 문평면 소재 나대용 장군 생가와 소총사, 봉강사, 송재사, 거평사, 국립나주박물관 등을 견학하며 조선시대 나주 역사인물들을 만나는 시간이 됐다. 체암 나대용 장군은 임진왜란 발발 때 충무공 이순신의 막에서 거북선 건조를 도운 실질적 공로자로 조선 수군에서 가장 탁월한 배 만드는 기술자이자 용장으로 알려져 있다. 전남도 문화재 기념물 제26호로 지정돼있는 체암 생가는 문평면 오룡리에 위치해 있다. 장군의 영정과 위패가 봉안된 ‘소총

사’에서는 매년 4월 21일(과학의 날)나대용 장군의 뛰어난 창의정신을 기리는 추모제를 열고 있다. 오룡리 마을 초입에는 고려시대 서해도 안렴사를 지낸 ‘송와 나문규’와 ‘죽헌 나계중’을 추모로 모시기 위해 금성 나씨 문중에서 건립한 ‘봉강사’가 위치해 있다. 이날 이야기관 일행은 조선 중기 문신으로 송재 나세찬(1488-1551)의 학덕과 충의를 기리기 위해 1702년 건립한 ‘송재사’와 임진왜란 때 공을 세운 금계 노인(1566-1622)을 기린 ‘거평사’도 함께 견학했다. 노인은 행주대첩을 이끈 권을 장군 휘하에서 이치, 행주, 의령 싸움에 참전하고 정유재란 때 포로가 되어 일본에 끌려갔다 탈출하였으며 명나라의 무이서원에서 정주학을 강론한 인물이다. 노인이 남긴 일기책 ‘금계일기(錦溪日記)’는 보물 제 311호로 지정되어 있다. /나주=손영철 기자 yacson@

## 다도면, 지역 역사 발자취 담은 면지 편찬 착수



나주시 다도면(면장 강운곤)이 면민의 정체성 확립과 지역 역사 발자취를 담은 면지 편찬을 추진한다. 다도면은 지난달 26일 관내 복지회관에서 출향향우와 주민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다도면지편찬위원회(위원장 흥기축) 창립대회 및 현판식(사진)을 갖고 면지 편찬 작업에 착수했다고 4일 밝혔다. 창립대회가 앞선 면은 지난 3월 28일 편찬위원회 발기인 회의에서 회칙 제정과 임원 20명 등 편찬위원 172명을 구성했다. 또 목포대 선영란 박사를 강사로 초청해

“다도면지 편찬방향 및 자료조사”를 주제로 타 지역 면지 편찬 과정에서 발생한 오류를 분석했다. 편찬위는 이날 창립행사를 통해 면지 편찬을 위한 단계별 세부계획 수립, 편찬기준, 편찬기금 모금방안 등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교환했다. 흥기축 위원장은 이 자리에서 “다도면의 유구한 역사문화와 선현들의 발자취를 집대성한 면지 발간을 통해 면민의 정체성을 확립하고 후손들에게 소중한 유산으로 물려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나주=손영철 기자 yacson@



## 나주시 민선 7기 슬로건 확정...화합과 도약 의지 담아

민선7기 나주시(시장 강인규)의 시정 슬로건은 ‘함께 여는 미래, 호남의 중심 나주’로 확정됐다. 나주시가 지난달 19일부터 24일까지 시민과 시 공직자를 대상으로 민선7기 시정 슬로건 공모를 진행한 결과다. 이번 공모에는 총 122건의 슬로건이 접수되어 민선7기 시정에 대한 뜨거운 관심과 기대감을 확인했다. 시에 따르면 1차 실무부서회의를 통해 12건의 후보자를 선별하고 시정목표설정위원회의 최종 심사를 통해 4건의 우수작을 선정했다. 민선7기 나주시정 슬로건으로 최종 선정

된 ‘함께 여는 미래, 호남의 중심 나주’는 ‘시민 화합’과 ‘다시 호남의 중심도시로 도약하고자 하는 의지’를 담아냈다. 슬로건은 민선7기 4년 간 각종 시정 홍보 분야 및 시정 및 읍·면·동 현판 등 주요 시설물에 적용될 예정이다. 강인규 나주시장은 “지난 수십 년 간의 쇠락의 길을 벗어나 전라도 정명 천 년인 2018년을 나주의 새로운 미래전 년을 여는 원년으로 삼겠다”며 “시민과 함께 과거 천년 고도의 영광을 회복해 나주를 다시 호남의 중심도시로 만들어가겠다”는 각오를 밝혔다. /나주=김민수 기자 kms@kwangju.co.kr

## 금성산 생태물놀이장 올해 휴장

국립나주숲체원 공사로 나주시 경흥동 금성산 자락 1만㎡부지에 조성된 금성산 생태물놀이장은 물놀이 풀장 3개(871㎡), 차량 80대를 동시 수용할 수 있는 주차장(3184㎡)을 비롯해 어린이놀이시설, 샤워장, 화장실, 쉼터 등을 갖추고 있다. 한편 산림청 녹색자금(복권기금) 200여원을 투입해 한국산림복지진흥원에서 추진 중인 나주숲체원은 오는 2020년 5월 준공을 목표로 지난 4월 착공식을 갖고 첫 삽을 떴다. 금성산 자연생태환경을 활용한 산림휴양·복지시설인 나주숲체원은 지하 1층 지상 2층 규모의 교육·체험·휴식이 가능한 숲체원시설을 비롯해, 방문자센터, 강당, 숙박시설 등이 들어선다. /나주=손영철 기자 yacson@

# 상가 원룸 매매 [신축 상가주택]

- 월곡시장 2분 (고려인마을) 산정공원 바로앞 (코너)
- 공실 없음 (항시 임대대기)
- 1층 ★상가 2칸★
- 2층~3층 (원룸 9개) (투룸 2개)
- 4층 (최고급 주택)

★ 공원앞 전망최고 ★

보 9천 월 600만 (용3억)

▶ 매가 9억5천만

010-7384-7800    010-6670-9800

## 상가매매(수익형)

상무지구 중심구역(12층중 6층 상가) 롯데마트 앞 19평 (모든 업종가능) 보5백 월 40만

▶ 시세 1억  
매가 6천300만

원룸빌딩 매매

- ① 산정동(1층코너 상가) (원룸 15개)(합16개) 월세 600만 ▶ 매가 8억8천
- ② 월곡동 산정공원 1분(1층,상가칸) 2층~4층(원룸12개)(투룸3개) ▶ 매가 8억7천만 (월세 590만)
- ③ 월곡동시장 2분(원룸12개, 투룸2개) 총 14개 (월수익 550만) ▶ 매가 8억4천만
- ④ 전대정문2분 (원룸18개, 안잡1개) 보7천만 월700만 ▶ 매가 12억8천만(용 3억5천만 가능)

010-6670-9800  
062-382-5500